

보도시점 2025.9.21.(월) 배포 즉시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추석명절 체불전수감독 실시

- 9.1.부터 9.23.까지 임금체불 사업장 70개소 전수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문세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체불 발생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신고 반복 접수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집단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강릉, 속초, 동해, 양양, 고성 지역에 소재한 70개소 사업장에 대해 노동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 하고,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문세원 지청장은 “임금 지급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관내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불전수감독 및 신속한 체불 청산을 실시하여 관내 근로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강릉지청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노동기준감독과	책임자	과 장	허운 (033-650-2519)
		담당자	근로감독관	강승구 (033-650-2556)